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누구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지금껏 가져왔던 그 같은 모두가 내려놓기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변화와 개혁의 옳은 방향을 찾아내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그동안 가져왔던 크고 작은 기득권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과감히 기득권

변화와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득권은 부와 권력 등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조직, 계층 등에 국한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변함없이 영원히 가지고자 하는 작은 마음도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소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도로 위에서 약자인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예기를 들어주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공무원의 모습, 방황하는 학생을 위해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오랜 시간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의 모습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직무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과목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강의교재를 개발하는 교수의 모습, 맞벌이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을 함께하는 남편의 모습, 각자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았을 때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학가는 지난해 불어 닥친 구조

개혁의 거센 파도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개혁도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득권을 조금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지키고자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백년지대업인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교육여건을 무시한 채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 세대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겐 잃어지고 가기 힘든 큰 짐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도 결국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감할 때 모두가 만족하고 동의하는 모습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 지난 1년 동안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해 비만에서 정상체중으로 돌아온 내 몸의 변화와 개혁(?)도 그동안 가져왔던 내 몸의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와 자동차와 같이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편리성으로 인한 신체적 활동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하루 삼시 세끼, 그것도 부족하여 아식까지 배부르게 챙겨 먹어왔던 내 몸의 기득권과 잠시를 움직여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편리성에 대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았을 때, 몸의 변화가 서서히 다가왔다. 오랜 시간 동안 불어난 몸무게를 빼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공공, 교육, 노동, 금융부문의 변화와 개혁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 세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질 것이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야당이 도와야 성과 커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자동차산업 육성책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의 확대 노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첨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광주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산업경쟁력을 갖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창출 논의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라며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민선 6기 광주시의 제1 과제로 노·사·민·정이 대대적으로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예컨대 연봉 3000만~4000만 원대의

중간수준 임금으로 기업들이 부담없이 광주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저임금의 단발성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노사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의 신모델인 셈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활동이 이런 틀 안에서 지속될 것인지, 노사와 민관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난제라 많지만 기대감이 높다.

문제는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유치와 생산기반 확충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 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 기업에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절박한 광주 경제를 위해 야당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다시금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광주 누리과정 예산 제때 지원 어렵다니

광주시교육청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서 한고비를 넘겼다. 만 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이 2월 말로 바닥 나면서 이달부터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여가 지방재정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동시에 예비비를 풀기로 합의해 당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3월 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 까닭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에서 바로 예비비를 지원해주면 해결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통과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께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빼내 지원하는 예산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이 없어 이마저 여의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달 60억 원으로 봉급일인 25일에 지급하게 돼 있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설사 급한 불은 끄더라도 집행될 국고 예산이 2개월치

에 지나지 않고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어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조만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안아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무상급식과 맞물려 논란이 된 지 오래다. 정부 여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시·도지사와 교육청 공약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의 모순이자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교육복지를 놓고 나 다르고 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전국의 교육자들이 “국가 책임인 무상보육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거듭 지적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이제 비생산적인 살바싸움을 멈추고 재원 확보 찾기에 나서야 한다.

의료칼럼

봄철 건강관리



강채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인체가 적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춘곤증이다. 춘곤증이 생기는 원인은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차갑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외부의 온도와 습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긴 겨울에 적응했던 우리의 신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춘곤증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계절의 건강관리 방법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먼저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식을 피하고 봄나물을 포함한 음식

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봄철에는 상대적으로 신선대사가 왕성해지면서 비타민의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섭취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타민 B는 콩, 현미, 보리 등의 잡곡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는 냉이, 달래, 미나리, 도라지 등의 봄나물과 조리하지 않은 야채, 과일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두번째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적어도 1주일에 3회 이상의 운동해야 하며, 1회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 중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택한다.

세번째로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따르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취침시간이 다소 다르더라도 아침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낮 시간에 많이 졸릴 때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좋지만 본격적인 낮잠을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낮잠을 20분 이상 자면 몸의 리듬이 다시 수면 리듬으로 가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적응하기에 힘들 수가 있다. 또,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

아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봄철에는 이사, 진학 등의 환경 변화가 많고 그것이 좋은 일이면 나쁜 일 이면 간에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하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이전보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다. 감기는 물론이고 감기가 아닌데도 인후통이나 눈 가려움증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특히 노약자들은 호흡기가 약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증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호흡기 약한 분들이나 어린이, 어르신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안 환기를 할 때에는 최대한 짧게 자주 하도록 하고, 실내 습도를 높여서 미세먼지의 활동성이 떨어지게끔 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코 입구를 깨끗한 물로 씻어 내는 게 좋다. 환자와 관련된 ‘삼겹살 속살’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은 돼지고기가 지용성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를 높일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황사 해독에 좋은 것은 충분한 수분섭취다. 수분은 체내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이노저용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물을 평소보다 더 자주 마시고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좋은 탄닌 등이 함유된 녹차를 추천한다.

동의보감에는 폐가 오장을 덮어주는 덮개의 역할을 한다고 봤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폐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폐는 습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고 기록돼 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높은 습도인데, 바로 습한 것을 좋아하는 폐의 특성과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환절기나 환사가 심한 날씨는 실내 습도를 55~65%로 유지하고 찬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동의보감에서 단방으로 폐문을 나와 있는 약재 중에 차로 마실 수 있는 것들로는 오미자, 길경(도라지), 굴피(굴껍질) 호두, 매실, 복숭아 등이 있다.

기고

무지개 만드는 마을



오인성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무지개는 아름답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게 되면 차라리 목숨을 거둬가 달라”고 읊으며 무지개를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삼았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아마도 일곱 빛깔의 독자성과 그들이 이루는 조화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지개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이름으로, 개인의 독자성과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각각의 빛깔이 선명하면서도(독자성) 한데 어우러져(조화) 온전한 아름다움(행복한 삶)을 만드는 무지개의 속성이 혁신학교를 상징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혁신학교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을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대학입학을 지상과제로 여겨 인성보다 학력을, 협력보다 경쟁을 부추겼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력경쟁은 학습의욕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가르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만민의 만민에 대한 투쟁과 다르지 않아서, 경쟁의 결과로 소수가 얻게 되는 만족감은 다수가 갖는 열패감이나 적대감 같은 부정적 심리의 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또, 학력과 경쟁위주의 ‘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아는 교육’은 학교문화 안 교육이 추가 되는 폐쇄적인 속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혁신학교 즉, 무지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나주 전라남도교육청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 도교육청과 나주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4년간, 양측에서 매년 2억 원 씩 총 16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단위로 학교혁신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터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제 빛깔을 갖게 하는 교육이다. 이를 ‘따로의 교육’이라 하자. 학교는 학생에

게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개발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교육은 협력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를 ‘같이의 교육’이라 하자. 학교는 다양한 능력과 성격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며 사회공동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체협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돈이나 권력 같은 재화를 소수가 독식하는 사회를 당연시하고 적자생존(適者生存)을 부추겼음을 인정하고, 무지개교육을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 자연에 대한 배려와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나주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에서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를 구호로 내 분야를 중점 혁신할 계획이다. 첫번째는 학교문화 혁신(School culture innovation)으로, 자치공동체 같은 학생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취약학생 통합지원 망으로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두번째는 교육방법 혁신(Teaching method innovation)으로, 미래핵심역량인 창의와 융합, 자율과 배

려, 참여와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제 통합형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조율과 합의를 실현하는 융합형 토론수업을 확대할 것이다. 세번째는 교육지원체제 혁신(Educational support innovation)으로, 나주이화 유소우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과 다문화 인턴감사, 학교도서관 순회사서 등의 교육과정 운영 인력을 지원코자 한다. 네번째는 파트너십 혁신(Partnership innovation)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망을 만들고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학습 및 학력취득 지원사업 등을 호혜적 관점에서 추진하려고 한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는 혁신학교의 정신과 문화가 전체 학교로 확산되어 정착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교육공동체 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물과 빛과 공기가 어울려 무지개를 만들어내듯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가 힘을 모으면 무지개교육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한 빛은 속이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일을 맞아,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나주 들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찬란한 무지개가 걸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나주는 무지개를 만드는 마을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휴대전화의 진화는 끝이 없어 보인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은 모두 갖춰져 있다. 선두 주자인 삼성과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세계는 경악한다. 휴대전화는 이제 생활의 필수 도구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어떤 이에게 자신의 아바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 생명줄과 동일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인한 부작용과 사회적 일탈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기 자체가 기능의 다양성과 사용의 편리성만을 쫓는 데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결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드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설치된 것은 1898년 조선 후기다. 이때 이미 전화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한다. 현재 휴대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반성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전화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무례가 유일한

것이었다. 조정은 ‘전어감사(傳語監使)’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을 전화기 옆에서 있도록 했다. 전어감사는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흑시 욕설이나 못된 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나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고종 황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전화를 이용해 대신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신들은 고종 황제로부터 전화 오는 시간에 맞춰 조복을 갖추 입고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때 전화 벨이 울리면 대신들은 전화기에 네 번 절을 한 뒤, 엎드린 상태에서 두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대고 어명을 받았다.

고종 황제는 덕수궁에서 왕과 왕비의 능이 있는 동구릉의 대왕대비 신정왕후 능에까지 임시 전화를 놓아 전화를 통해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기도 했다. 순종 황제 역시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왕릉에 직통전화를 설치해 전화로 곡을 했다고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통화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휴대전화와 범죄에 이용되려는 순간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이 탄생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최희송 사회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